

# Columbia College Chicago

## 교환학생 체험기

(2022-2학기 ~ 2023-1학기)

2019165006

한국음악작곡과 전지민

### 1. 시카고, 학교 소개

컬럼비아 컬리지 시카고(CCC)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에 위치해 있으며, 비교적 시카고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미술관, 공연장들이 인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문화생활을 즐기기 좋습니다. 영화, 연기, 무용, 미술, 방송연론, 문학, 음악 등 여러 예술 관련 학과들로 구성되어있는 예술 대학이며 저는 교환 학기 당시에 작곡 관련 수업을 위주로 들었습니다. 저는 2022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9개월간 교환 학기를 보냈는데요, 미국에서는 가을에 첫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3학년 2학기로 인정됐지만 CCC에서는 4학년 1학기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 내에서도 겨울이 혹독한 곳으로 유명하고, 눈이 이른 시기부터 많이 내리기로 이름이 난 도시이기 때문에 가을학기에는 롱패딩과 방한 부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또한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만 일교차가 심하고 일주일 내에서도 날씨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날씨를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 2. 대학 생활

교환학기가 시작하기 2개월 전쯤에 CCC에서 교환 지원서 메일을 보내줬는데요, 이때 지원서를 작성하고 비자와 DS-2019를 미국 학교 측에 전달하면 기숙사 신청과 학생 보험, 수강 신청, 버디 신청과 같은 것들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줍니다. 수강 신청은 직접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학과 academic advisor와 함께 메일을 주고 받은 후, 줌 미팅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CCC에서는 12학점 이상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110달러 가량의 가격으로 무제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12학점 이상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한예종에서 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수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줌 회의 전에 수강 편람을 잘 확인해보시고 관심가는 수업을 academic advisor에게 건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 내에는 다양한 스포츠, 교내 신문, 애니메이션, 호러 영화, 캠핑 등등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고, 매일 다양한 교내 공연과 전시, 스크리닝, 이벤트들이 열리기 때문에 학교 어플인 engage를 자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교 건물들 중 sherwood hall과 1014 music building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두 건물 모두 방음부스와 연습실, 장비들이 잘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Art 빌딩과 dance 빌딩 모두 건물 내에 시설이 좋았고 학생들이 빌려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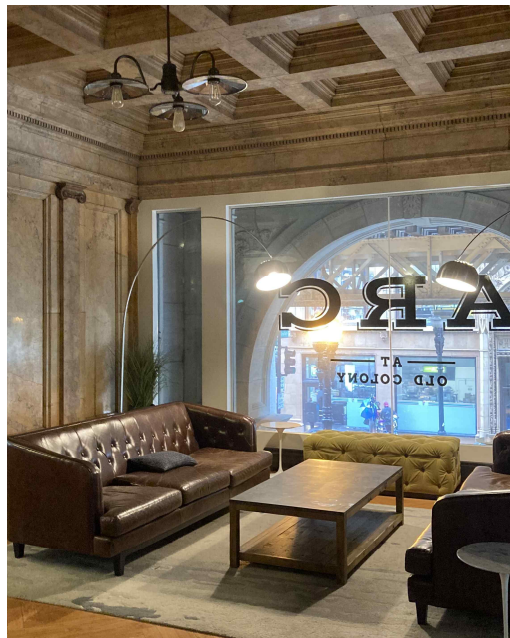
### 3. 기숙사

CCC내의 기숙사 건물은 dwight, the arc, university center, 30 east 총 4가지이며, 그 중 저 는 the arc 건물에서 지냈습니다. the arc는 18층 건물로 한 층 마다 4인실, 2인실, 6인실, 5인실 등 다양한 크기의 기숙사 방들이 있습니다. 각 방은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거실과 화장실, 부엌은 공용공간이고, 다인실일수록 규모가 큼니다. 이 건물은 21 plus 기숙사로 21세 이상 학생들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규모가 커서 ccc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기숙사생을 위한 많은 이벤트들이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방은 4인실이였으며 1인실 2개와 2인실 1개로 구성된 방이였고 저는 2인실을 사용했습니다. 2인실은 한방 안에 침대 2개, 옷장 2개, 책상과 의자가 2개가 있는 구조이며 따로 공간을 분리하는 칸막이 같은 것이 없었던 점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기숙사 방 >



<기숙사 2층 휴게실>

### 4. 일상 생활

기숙사와 학교가 도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식료품을 사는 것과 쇼핑을 하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햇반이나 삼겹살과 같은 한국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곳인 H Mart 또한 기숙사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 내에서 세금이 2번째로 비싼 도시인만큼 물가가 상당하지만 식료품세는 없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요리하며 식비를 줄였습니다. 기숙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Target이라는 대형마트가 있고, 15분 거리에 trader joes 라는 식료품점도 있어 이 두 곳에서 주로 식료품과 생필품 쇼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간 체크카드로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환율을 적용하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chase bank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친구들과 정산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미국 계좌가 있어서 편리했던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계좌개설을 추천드립니다. 카드 발급 또한 1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어서 비교적 빨리 발급이 되었습니다.

## 6. 문화생활, 여행

주변에 미술관과 극장이 많이 위치해 있고, 학생 할인이 적용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시카고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미국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시카고 미술관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애용했습니다. 주변에 극장은 오페라 극장과 시카고 필하모닉 센터, 뮤지컬 극장 등이 있고, 특히 필하모닉 센터에서는 모든 공연에 대학생들을 위한 할인을 적용하면 몇몇 구역을 제외한 모든 좌석을 15달러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동부에 위치해 있어서 서부지역과는 비행기로 약 5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뉴욕과 꽤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2학기에는 추수 감사절 휴가가 꽤 길기 때문에 그쯤 여행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